



특집 _ '모국과 동반성장·차세대 양성' 모색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성료
 기획 _ K콘텐츠, 코로나 딛고 세계로... "2025년 매출 168조원"
 화제 _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2024년까지 6조3천억 원 투자



한상(韓商),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 10월 19일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축사



존경하는 동포 경제인 여러분, 국내 기업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제19회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대회를 치르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올해 세계 각지의 한상 여러분을 고국에 모시고,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함께 해주신 44개국 380여 명의 동포 경제인과 830여 명의 국내 기업인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상 기업인 한분 한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관입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고, 성장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세계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고, 현지 동포사회의 발전과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섰습니다.

저는 순방 때마다 우리 한상들을 보며 큰 힘을 얻습니다. 척박한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

다. 지난해에는 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고,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최초의 나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상을 비롯한 재외 동포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새로운 꿈을 꿀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을 논의합니다.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의 상생발전에 애써온 여러분들이 또다시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시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입니다.

결실의 기쁨을 나누는 가을, 오랜만에 방문한 모국에서 새로운 여유와 활력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 02 권두언 한상(韓商),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문재인 대통령
- 04 특집 ‘모국과 동반성장·차세대 양성’ 모색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성료
- 06 기획 K콘텐츠, 코로나 딛고 세계로… “2025년 매출 168조원”
- 08 화제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2024년까지 6조3천억 원 투자
- 10 글로벌 코리아 나가사키 원폭 한국 희생자 위령비 세운 강성춘 건립위원장
 ‘중국의 주현미’ 구련옥, “두고두고 듣고 싶은 노래 부르겠다”
 김민선 美한인이민사박물관장 “한국문화원, 공공외교 중심돼야”
- 12 한민족 공감 美 한인 주류 정치권 진입 활발, 차세대 진출 돈보여
- 14 유공 동포 ‘이리랑’ 연구 천착 지리학자 이정면 美 유타대 명예교수 별세
- 15 주목! 차세대 美 LA ‘젊은 소리꾼’ 심현정, “미국땅에 판소리 전파하겠다”
- 16 동포소식 재라오스 한인회, 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나눔 행사 개최 외
- 19 동포 캘린더 뉴욕 한복판서 한인축제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외
- 20 지구촌 통신원 1 한·브라질수교 62주년 기념식 상파울루서 열려… 우의 다져
- 21 지구촌 통신원 2 50여 년 전 과거를 마주하다… 베를린서 파독간호사 사진전
- 22 OKF 뉴스 입양인 네트워크 한마당 ‘입양동포 모국방문’ 온·오프 개최 외
- 24 유관단체 소식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 미래 모색한 ‘제4회 공공외교주간’ 외
- 25 기고문 한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한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 26 재단공지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하세요’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국과 동반성장·차세대 양성’ 모색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성료

청년 인턴 45명 채용·1억8천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내년은 울산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10월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9차 세계한상대회’가 동포 기업인과 모국 간 동반 성장과 차세대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내고 10월 21일 막을 내렸다.

45개국에서 1천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이슈의 흐름에 맞춰 이제는 모국 발전과 함께,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한상(韓商)의 역할을 모색했다.

동포기업인 한 자리에 ‘한민족 공동번영 모색’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9일 개막식 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해외 곳곳에서 한민족 경제영토를 넓혀온 동포 기업인들이 모국발전뿐만 아니라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이사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최근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최초의 나라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내외 동포 모두가 합심해서 일궈낸 자랑스러운 성취로 한상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관”이라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인 탈(脫)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상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회식 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대회 첫 번째 세미나로 ‘K-방역, K-식품 세계를 넘어 희망을 열다’를 주제로 방역산업 수출 동향과 한국 식품의 해외 진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한상대회운영위원회와 리딩CEO등으로 구성된 한상(韓商) 통합단체가 결성되면 재단이 주관해 온 대회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는 공동대회장인 김근욱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장과 하경서 엘살바도르 카이사그룹 회장도 참석했고, 대회장인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장은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했다.

김 이사장은 “19회를 맞은 한상대회는 성년이 된 셈”이라며 “그동안은 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정부가 주도했지만, 대회가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만큼 더 큰 성장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본격적으로 이관하는 시점은 2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열여 온 대회를 격년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대회를 열 경우 개최국 정부나 현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제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K-산업 집중 조명, 온라인 수출상담 '활발'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대회 기간 'K-방역과 K-식품' '인공지능과 IT' 'K-바이오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려 변화하는 비즈니스 동향을 공유했다. 중진 경영자와 젊은 차세대 기업인들이 함께 네트워크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상 포럼'과 24개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기업 IR'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동포단체와 국내 단체 간 다양한 협력이 추진됐다. 미국 5개 주 한인상공회의소는 광주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뷰티산업 무역협회, 대한민국화장품OEM협회 등과 교류 및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회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도 태권도를 통한 자긍심 고취 및 한민족 교류 증진 등을 위해 국기원과 MOU를 맺었다.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는 세계한상대회 공동대회장으로 엘살바도르에서 굴지의 섬유·커피 기업을 일군 하경서 CAISA그룹 회장과 인기 유튜버인 미미누누가 출연해 각각 '중남미 창업스토리'를 소개하고 '취업시장의 흐름과 해외 취업'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상기업 청년 인턴십 면접'도 진행해 현장에서 45명의 청년이 채용됐

다. 87개 기업이 홍보부스를 선보인 현장 쇼룸과 176개 국내 기업과 한상 바이어가 참여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한상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608건의 미팅과 1억8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폐회식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 창조 ▲모국과 경제협력 및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하기 ▲차세대 육성 협력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협력 ▲재외동포 전담 기구로 재외동포처 설치 촉구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국내외 경제인 덕분에 내실 있는 대회가 됐다"며 "한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굳건한 한상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1월 1~3일 울산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행사가 열린 울산전 시컨벤션센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숙박 시설,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산업·생태·문화관광지, 산업 도시의 장점을 부각해 한상들의 참가를 늘일 계획이다. [\[장\]](#)

1.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9차 세계한상대회' 폐회식에서 김성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대회기간 해외에서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는 한상기업인의 대표적인 네트워크인 리딩CEO포럼이 열렸다.
3. 한상기업인들이 사회공헌활동단 단체인 '(사)글로벌한상드림'은 대회기간 총회를 열어 국내외 한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4. 대회 참가 한상기업들은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해 45명을 채용했다.
5. 20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는 내년 1~3월 울산에서 열린다.



K콘텐츠, 코로나 딛고 세계로… “2025년 매출 168조원”

“수출 157억 달러 목표”… 정부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오징어게임’과 같은 한류 성과를 확산하고자 2025년까지 콘텐츠 매출 168조 원·수출 157억 달러를 목표로 한 콘텐츠산업 정책이 추진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류와 연관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브랜드K 등 4대 K-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수출 성과를 기록해 유망 성장 분야로 자리매김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늘어났다.

정부는 11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열어 문화를 통한 일상 회복, 한류 성과 확산 등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 활력을 회복하고, 2025년까지 콘텐츠 매출 168조1천억 원(이하 2020년 기준 126조원), 수출 156억9천만 달러(108억3천만 달러), 해외 한류 팬 1억5천 명(약 1억 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류와 연관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브랜드K 등 4대 K-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수출 성과를 기록해 유망 성장 분야로 자리매김 했다.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김 총리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소비와 ‘집콕 문화’가 역설적으로 세계 시장 공략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영상과 음악 분야에 집중된 한류를 출판, 전통문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류는 세대, 언어, 국가라는 장벽을 모두 허물었다”며 “달고나,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등 잊힌 추억을 불러내 세계 모든 세대가 즐기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콘텐츠의 힘과 가능성은 그 한계를 가능하기 어렵다”며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피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치유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제는 ▲문화를 통한 일상 회복 ▲콘텐츠 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을 문화로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

변화된 일상을 예술적 시각으로 표현하고 기록한 결과물을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에 '코로나19 아카이브'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공공예술'과 인문치유 프로그램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실감콘텐츠 체험 공간인 '광화시대' 조성, 문화예술주간 개최 등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을 예술로 기록해 상흔을 치유하고, 일상회복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열어 희망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화된 일상을 예술적 시각으로 기록한 결과물을 도서관·박물관 등의 문화기반 시설에 '코로나19 아카이브'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록과 자료수집·관리에는 47억 원이 투입된다. 공연·전시 프로그램에는 국립예술단체와 청년예술가 등이 대거 참여한다.

문체부는 2022년 상반기에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도 복원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참여와 소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국내 최대 미디어아트"라며 "회복의 의미를 확산하고자 글로벌 미디어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비대면 온라인 문화·여가 수요 급증에 따른 콘텐츠산업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와 실감 콘텐츠를 육성하고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창작·제작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1천328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결하고자 이달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를 출범한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도 추진한다.

전국 문예회관(256개), 콘텐츠코리아랩, 아트컬처랩, 지식재산(IP) 융복합 콘텐츠 협력단지(클러스터) 등을 거점으로 지역의 콘텐츠 제작 및 문화향유 기반을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130곳을 구축하고, 예산 111억 원을 투입해 지역 유희공간에 첨단 기술



4

을 접목한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산업 지원을 확대하며 플랫폼과 제작사 간 공정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아웃바운드 창구를 체계화해 한류 확산 거점을 확대해나간다. 내년 뉴욕코리아센터와 주스웨덴문화원을 신설하고, 현재 234곳인 세종학당을 내년 27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범정부 4대 연관산업(문화·식품·미용·브랜드K) 간 협업 과제를 집중 지원해 한류 성과를 연관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코로나19를 딛고 큰 도약을 이뤄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관계부처 간 협업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4대 K-산업을 중심으로 상품의 기획·개발, 유통·마케팅·체험 등 전 단계에 걸친 협업사업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중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으로 한류 및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

1.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옥'이 1위를 차지하며 K 드라마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2.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 BTS에서 오징어게임까지 문화적 거물이 됐다고 분석했다.
3.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가 11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영상관을 방문해 '금강산에 오르다' 등 실감콘텐츠를 관람하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 중소벤처기업부 홍보관에서 한류 마케팅 성공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2024년까지 6조3천억 원 투자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 “백신 5대 강국 도약 적기”



한국을 세계적인 백신 생산·보급 기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과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백신 관련 기업 육성과 지원하며, 민간에서는 6조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는 11월 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지난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정부·민간위원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기업의 생산설비 구축자금을 지원하고, 6조2천900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해 이 분야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백신은 제2의 반도체” 민간 설비 투자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



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은 2024년까지 총 6조2천900억 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월 착공한 송도 4공장 건설에 2022년까지 1조7천400억 원을 투자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송도 5·6공장 추가 건설하는 등 총 4조2천400억 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셀트리온은 공장·연구센터 건설에 1조5천억 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연구소 건립에 2천700억 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공장 신축에 2천260억 원 투자를 계획하는 등 민간 15개 기업의 주요 투자 규모를 합하면 총 6조2천9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투자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나아가 바이오 의약품 전반으로 투자 동력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 계획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백신·원부자재 기업이 백신 위탁·자체 생산



3

할 수 있도록 2021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0억 원을 올해 말까지 14개 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원조직으로 '분석특허팀'을 신설해 백신 산업과 관련된 특허 보고서를 제작하고 기업별 맞춤형 특허 전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백신과 관련된 특허·영업비밀 조합 전략(IP Mix)을 포함한 최적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상황별·맞춤형 해결 수단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이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안동의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화순의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등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센터들은 의약품 제조를 통제하고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관장하는 공공 제조시설이다.

수출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한·미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해외 백신 제조사별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GP) 전용관을 구축해 화상 상담 등으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의 협력을 지원한다.

WHO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참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HO는 중·저소득층의 백신 생산 역량 확충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 극복과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인력양성 분야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양국간 협력을 진행해왔고, 그 결과 9월 미국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해 아시아지역 교육생 60명이 국내에서 교육받도록 해 인력양성을 돕고,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백신개발·원부자재 공급 등을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백신 파트너십을 유럽연합, 아세안 국가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지난 9월 베트남 정상회담 의제였던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백



4



5

신 지원·공동생산 협력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찾아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번 기회에 글로벌 백신 허브로 대한민국이 도약함으로써 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백신주권 확보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민·관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2025년 백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팬데믹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 결국 국가 간 힘을 모아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모든 나라에 차별 없이 백신이 공급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

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경기도 판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월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앞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앞서 열린 글로벌 백신 허브화 조기 달성을 위한 10대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 제2차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 앞서 열린 사전 행사에 참석한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5.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까지 6조2천900억 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가사키 원폭 한국 희생자 위령비 세운 강성춘 건립위원장 “재일동포 손으로 건립, 염원 이뤄… 한국 정부도 지원”

“재일 한국인 동포의 손으로 염원이던 나가사키(長崎) 원자폭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드디어 건립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 6일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에서 강성춘(6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나가사키현 지방본부 단장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나가사키시에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8월 9일 원폭이 투하돼 약 7만4천명이 사망했다. 이 중 수천명~1만명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 출신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희생자가 발생한 지 76년, 건립 추진 27년 만에 세워졌다.

2013년 7월에는 민단 나가사키 본부를 중심으로 건립위원회가 결성됐다. 그러나 나가사키시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가 발생한 역사적 배경인 일제 강제 동원 관련 비문 내용과 위령비 디자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건립위 결성 당시 사무국장이었다가 2016년부터 위원장을 맡은 강 단장은 “서로 건립 의의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협의를 거듭해 이번에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징용과 관련해 ‘강제’라는 표현은 안 된다는 입장을 시 당국이 고수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으로 타협을 봤다.

강 단장은 위령비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나가사키 평화공원과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국인 원폭 피해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앞으로 매년 원폭 투하 전날인 8월 8일에 새로 건립된 위령비 앞에서 추모 행사를 개최할 생각”이고 밝혔다. 또 “위령비 건립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재일 동포 및 관계자 모두의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위령비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과 한국인 피폭 역사를 후대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주현미’ 구련옥, “두고두고 듣고 싶은 노래 부르겠다” “엔벤의 인기 한국서 잇고, 다시 중국에 한국 노래 알리겠다”

“이 세상에 없어도 기억에 남는 가수, 두고두고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서 ‘중국의 주현미’라고 불리며 인기를 구가하던 재중동포 가수 구련옥 씨는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구 씨는 최근 앨범 ‘그대를 만나는 날’을 출시했다. 앨범에는 작곡가 김정옥의 신곡 ‘그대를 만나는 날’, ‘사랑 송이’ 등과, 가수 김범룡에게 받은 신곡, ‘별이 되어’, ‘약속’ 등 모두 4편의 신곡과 그동안 자신이 연변에서 불렀던 ‘아바이’, ‘해바라기’와 김종찬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양수경의 ‘그대는’ 등 4편을 포함하여 모두 8곡을 담았다. 재한동포와 중화권 팬들을 위해 중국말로 ‘사랑이 저만치 가네’, ‘그대는’, ‘그대를 만나는 날’, ‘사랑 송이’를 불러 앨범을 만들었다.

그는 이어 “한국 무대에서 성공해 궁극적으로 중국 무대에 진출해 한국 노래를 알리는 것이 꿈”이라며 “제 노래가 한·중 우호 협력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중국 지린성 왕칭(汪淸)현 출신인 구 씨는 1987년 연지(延吉)시 구연단에 합격해 이듬해 엔벤TV 음력설 야회에서 '오빠의 편지'를 부르며 데뷔했다. 이후 '해바라기', '보리차', '부모', '노년을 잘 보내시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인기를 얻었다.

1994년 중국 청년 가수 콩쿠르에서 양수경의 노래 '바라볼 수 없는 그대'를 불러 대상을 받았던 그는 '중국의 주현미', '노래의 황후'로 불리다가 돌연 무대에서 사라졌다. 1999년 결혼과 함께 다롄(大連)으로 떠나면서 팬들 곁을 떠났다.

구 씨는 2016년부터 복귀를 준비했고, 지난해 8월 서울에 와 앨범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수들이 무대에 서는 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어떤 무대도 가리지 않고 오를 것"이라고 의욕을 다졌다.

2019년 엔벤에 대중음악협회를 설립한 그는 "앞으로 재중동포 후배들이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발판도 만들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김민선 美한인이민사박물관장 “한국문화원, 공공외교 중심태야” 교육사업하며 한민족 알려… ‘장보고 한상 어워드’ 첫 여성 수상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한인회관 6층에 마련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새로 지어진 뉴욕한국문화원으로 이전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79년 5월 일본 도쿄(東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뉴욕 등 순차적으로 재외 한국문화원을 개원했으며, 현재 세계 27개국에서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한국문화원은 최근 뉴욕 한인타운 인근에 7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고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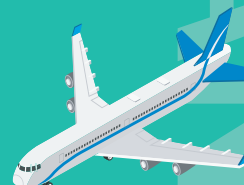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관장은 인터뷰에서 “박물관을 설립할 때 동포들로부터 미주한인 이민사 관련 유품과 자료를 4가량 기부받았는데, 아직 전시도 못 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새로 지어진 뉴욕한국문화원으로 박물관을 옮기면 이 유품들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어 “뉴욕한국문화원뿐 아니라 각국 문화원은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말고 공공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재미동포들의 이주사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것은 공공외교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최근 고국에서 열린 ‘장보고 한상(韓商) 어워드’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6회째를 맞는 이 어워드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수상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 ‘롱아일랜드 컨서버터리 예술원&음악대학’을 설립해 30여 년간 운영하는 등 교육 사업을 하면서 주류사회에 한민족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관장은 지난해 6월 인종혐오범죄 예방 운동 지지 차원에서 30만 달러 상당의 의료, 구호 물품을 모아 뉴욕시에 한인사회 이름으로 기부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톰 스위지 하원의원과 함께 연방하원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도 역할을 했다.

2015년부터 4년간 34, 35대 뉴욕한인회장을 지낸 그는 전미 소수민족 연대협의회가 수여하는 ‘엘리스 아일랜드상’과 세계 외교관 영사협의회의 ‘올해의 여성리더상’도 수상했다. **장**



美 한인 주류 정치권 진입 활발, 차세대 진출 돋보여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 뉴욕 첫 시의원, 여성 정치인 약진



1



2

11월에 치러진 미국 선거에서 한인 차세대들이 곳곳에서 주류사회 정치권에 진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버지니아주에서는 하원의원에 2명이 선출됐고, 뉴욕시에서는 첫 한인 시의원에 여성 2명이 선출됐다. 또 조지아주에서 '소녀상 지킴이' 활동에 앞장섰던 한인은 브룩헤이븐 시의원 3선에 성공했다.

마크김 7선 성공, '신에 여성' 아이린 신 당선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 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이 당선됐다. 변호사 출신의 마크 김(55) 의원이 7선에 성공하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30대 아이린 신 후보가 한인계 여성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거머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한인 의원이 동시에 2명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 35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99% 개표 현재 68.4%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 31.6%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를 결정지었다. 또 87선거구에서는 신 후보가 99% 개표 기준 65.2% 득표를 올려 2위 후보 34.8%를 크게 앞서며 낙승했다.

김 의원은 2010년 버지니아에서 첫 한인 의원이자 아시아 태생 의원이 된 뒤 2년마다 치러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해 7선 의원이 됐다. 김 의원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과 호주에서 이민생활을 거쳐 1978년 미국에 정착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흑인폭동 사건 당시 경찰이 소수계보다 주류인 백인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정치 입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주 하원 내 아시아·태평양계(AAPI) 의원 모임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신 당선인은 한국계 이민자의 딸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생활하다 버지니아주로 이주했다. 현재 시민 교육과 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6월 8일 치러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신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6월 8일에 이어 또다시 역사를 썼다며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그간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의 이야기와 관심사를 전해 들었다며 "일찍이 지금보다 더 힘차게 일할 준비가 된 적은 없었다."고 다짐했다.

1. 7선에 성공한 미국 버지니아주 마크 김 하원의원
2.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에 첫 입성한 아이린 신 당선인
3.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김백규 위원장(왼쪽 네 번째) 및 위원회 관계자와 3선 승리를 축하하는 존 박 브룩헤이븐시 시의원(가운데).
4. 뉴욕시 첫 한인 의원으로 당선된 린다 이 뉴욕한인봉사센터(KSC) 회장(좌측)과 줄리 원.
5.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 회의에서 '동해 병기법' 통과를 이끌어 낸 마크 김 의원.



3

40선거구에 출마한 또 다른 한인인 공화당 소속의 해롤드 변 후보는 99% 개표 기준 45.9%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54.1%)에 뒤졌다.

뉴욕서 첫 한인 시의원 2명 동시 탄생… 둘다 여성

미국 뉴욕시에서 여성 한인 2명이 시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다. 11월 3일 뉴욕시의회 23선거구에서 린다 이 뉴욕한인봉사센터(KSC) 회장이 63.6%의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26선거구에서도 한국계 줄리 원 후보가 77.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역시 공화당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차지했다.

인구 800만 명이 넘는 미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 중심지인 뉴욕시에서 한인 시의원이 배출된 것은 사상 최초다.

베이사이드를 비롯한 퀸스 동부를 아우르는 23선거구에서 이 후보는 최초의 아시아계 시의원이자, 여성 시의원이 됐다.

버너드 칼리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이 후보는 뉴욕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커뮤니티보드 멤버로 활약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KCS를 이끌면서 교육, 노인 복지, 의료,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사회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에는 뉴욕주 인가를 받아 최초로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민 1.5세대인 원 후보는 최근 아시아계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롱아일랜드시티와 그 주변에 걸친 26선거구에서 여성으로서, 또 이민자로서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했다.

시러큐스대를 나와 IBM에서 경력을 쌓은 진보 성향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는 모든 주민이 주거, 의료, 초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4



5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정 가격 주택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해 지역 사회의 공감을 얻었다.

일본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미국 남부에서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조지아주(卍) 애틀랜타 인근 소도시 브룩헤이븐에서 소녀상 건립에 힘쓴 한인 존 박(한국명 박현중) 시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박 시의원은 브룩헤이븐 2지구 선거에서 총득표의 64%를 획득하여 큰 표 차로 당선했다.

일본 측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7년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을 브룩헤이븐 시 공원에 세워졌다. 이 소녀상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미국 내에 세 번째로 세워졌다.

박 시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당선됐으며, 2017년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올해 선거에는 경쟁자 케이트 듀너건 후보가 나타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다. 이에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와 한인들은 박 시의원을 위해 5만5천 달러(약 6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하며 지원했다. [▶](#)

‘아리랑’ 연구 천착 지리학자 이정면 美 유타대 명예교수 별세

북한·중앙아시아 돌며 아리랑 기록, 영어로도 출판해 널리 알려

‘아리랑’ 연구에 천착해온 재미 지리학자 이정면 유타대 명예교수가 11월 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전남 광주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경제지리학 석사, 미국 미시건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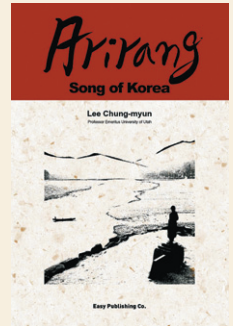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로 재임하다 미국에 건너가 유타대 교수로 강단에 서다가 2003년부터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유타대에 자리 잡은 뒤 토지이용계획·인구지리학·환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 등을 연구했다. 미국 중서부로 이주한 한인 노동

자의 흔적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후 말레이시아대, 미국 캘리포니아대, 일본 쓰쿠바대, 교토대 등의 초빙교수로도 근무했다.

고대 한반도 이주민에 관한 논문 50여 편과 토지 이용과 컴퓨터에 의한 지도 작성 논문 14편, 인구 이동에 관한 논문 8편을 집필했고, 은퇴 후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아리랑’ 연구를 시작했다.

15여 년에 걸쳐 ‘한 지리학자의 아리랑 기행’(2006년), ‘아리랑: 송 오브 코리아’(2009년), ‘아리랑 오브 코리아: Han, Sorrows and Hope’(2013년), ‘누이아 시베리아에 가봐: The Spirit of Arirang in Siberia’(2014년), ‘아리랑의 색깔’(Colors of Arirang·2017년) 등을 펴냈다.

‘누이아 시베리아에 가봐’는 우리 민족의 이동과 관련된 아리랑의 유래와 기원, 중앙아시아로 추방된 고려인의 애환과 대일 항쟁기, 한민족의 시원이며 사머니즘의 성소인 바이칼 호 이야기 등 재미난 이야기를 담아 지리학 대중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면 씨의 저서 '아리랑 오브 코리아'와 '아리랑: 송 오브 코리아'

‘참 아리랑꾼’ 이정면 씨

‘아리랑 오브 코리아’는 남한의 정선·밀양·진도, 북한의 해주·단천·고성·서도(평안도) 등지에서 불려온 아리랑의 내력과 약보를 담고 있다. 여기에다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채록한 아리랑 가사와 곡조도 곁들여 아리랑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평소 아리랑에 대해 “우리 역사에서 ‘한’을 빼놓으면 무엇이 남겠는가. 한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상징이나 다름없다”며 “그러나 아리랑은 한에 갇히거나 슬픔에 억눌리지 않고 별떡 일어나 전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10만km에 이르는 아리랑 답사를 다닌 뒤 최근까지 ‘18만 고려인 강제이주와 아리랑의 애환’을 집필했다.

고인은 생전 인터뷰에서 “세계의 민요 가운데 오랜 세월을 걸쳐 계급을 초월해 사랑받아온 노래는 아리랑이 유일하다”며 “한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방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을라 여사와 2남 1녀가 있다. 장례는 유타 한인회장으로 열렸다. [▶](#)

美 LA ‘젊은 소리꾼’ 심현정, “미국땅에 판소리 전파하겠다”

‘인강판소리예술원’ 운영... 전통예술단체 ‘토요풍류’ 도 참여

“미국인들에게 ‘코리아 솔로 오페라’로 알려진 판소리를 미국 땅에 전파하고 싶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젊은 소리꾼’으로 불리는 심현정 인강판소리예술원 원장의 포부다.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정부 예술위원회(CAC)의 펠로우십에 선정돼 기금 5천 달러(약 600만원)를 받았다. 한인 국악인이 CAC 펠로우십에 뽑힌 것은 드문 사례다.

심 원장은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앞세운 K-팝과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미국 내 한류 팬들을 판소리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200년 역사의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음악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유산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판소리 전도사’를 그는 자처한다.

펠로우십 기금을 판소리 전수생 양성에 쓰겠다는 심 원장은 2018년 LA에서 창단한 비영리 전통문화 예술단체 ‘토요풍류’(KTYPR)의 음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의 ‘판’은 막혀 있는 공간이 아닌 넓은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에게 소리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판소리’ 이고요. 한류의 영향으로 요즘 판소리에 관심을 두는 동포 2세와 미국인들이 늘고 있어 즐겁습니다.”

심 원장의 스케줄은 내년까지 빈틈이 없다. 한인 혼혈인과 입양인들을 위한 워크숍을 비롯해 ‘커뮤니티 찾아가는 공연’, 양로병원 위문 공연, 다른 커뮤니티와의 협업 무대, 제48회 LA 한인 축제와 제2회 네바다 아시안 아메리칸 페스티벌 공연 등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됐다.

심 원장은 15살 늦은 나이에 소리를 시작했다. 서울 국악



심현정 원장(왼쪽 3번째)의 공연하는 장면.



예술고교와 중앙대 음악극과를 졸업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준 보유자인 정옥향 명창에게서 ‘수궁가’와 ‘춘향가’를 배웠다.

어린이와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판소리를 전수하는가 하면 창극 공연자로 지역 순회공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 2011년 태평양을 건넜다.

이듬해 판소리 보급과 후진 양성을 위해 인강판소리예술원을 열었다. 3년 뒤 LA 한국교육원에서 6인의 동호인과 판소리 소모임을 시작했고, 2018년 이 소모임을 주축으로 토요풍류를 창단했고, 음악 디렉터를 맡았다.

LA 한국교육원에서는 7년째 뿌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포 2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전통예술 공연자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다.

“판소리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면 효과적입니다. 판소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강하고 풍부한 목소리와 호흡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강과 미용에도 좋죠.”

그는 내년 미국에서 ‘제1회 청소년 국제 판소리 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창**

재라오스 한인회, 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나눔 행사 개최

한국 여권 제시하면 50장씩 배포... 다문화 가정도 포함

라오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현지 한인단체가 동포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재라오스 한인회는 11월 6일부터 이틀간 주라오스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KF94 마스크 나눔 행사를 비엔티안 칼리지 부근에서 진행했다.

라오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하루 1천3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가

5만6천여 명을 넘어섰다. 보건 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자택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허용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마스크 50장을 받을 수 있



라오스한인회는 11월 6~7일 비엔티안 칼리지 부근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마스크 나눔 행사를 열었다.

으며 다문화 가정도 지원 대상이다.

한인회는 또 현지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라오스 전역에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 마스크 제조업체인 더조은이 마스크 50만장을 보내왔다.

한인회측은 앞으로 2~3주 후에는 생필품 나눔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로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때 3천400명에 달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천200명까지 줄어든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우상 한인회장은 “최근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확산해 우려가 크다”면서 “한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치 만들고, 오징어 게임’... 러시아 카잔서 한국문화 캠프

카잔연방대 ‘타타르 한글학교’ 주관 1박 2일간 진행

11월 27~28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서부에 있는 타타르스탄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한국 문화 캠프가 열렸다고 30일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 교수)가 전했다.

이 연구소가 운영하는 ‘타타르 한글학교’ (교장 김영숙) 주관으로, 사전 신청자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고영철 교수의 ‘독도, 동해’를 주제로 한 한국 역사 특강을 들었고, 김영숙 교장이 직접 지도하는 ‘김치 담그기’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운 뒤 시식도 했다.

또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배우고 즐겼다. 또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러시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무궁화꽃이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 연방대에서 열린 한국 문화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게임을 체험했다.

한국어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가 모인 캠프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도 교환했다.

앞서 10월에는 카잔의 초·중등 교사와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타타르스탄 대통령실

과 교육부, 한국 역사와 경제학자 등 한국학 전문가, 교육 행정가 등에게 한국을 알리는 워크숍이 열리기도 했다.

타타르 한글학교는 현재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무용, 태권도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에 선발된 5명의 러시아 학생 가운데 4명이 이 학교 출신이다.

김정숙 여사, 伊 한글학교 방문… “김치·피자 매력 모두 알길”

한국계 학생 등 대상 한글수업 참관… 옷놀이 등 소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10월 31일 로마 한글학교를 방문해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로마 한글학교는 현지에 있는 한국계 학생 또는 한국계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유네스코유산 비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수업에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김장문화와 나폴리 피자 제조법, 아리랑과 샤프데나 목동들의 노래 ‘칸투 아 테로레’, 한국의 갯벌과 ‘피에몬테 포도밭’을 비교하는 활동을 했다. 또 제주도 해녀와 ‘판텔레리아 공동체의’ 포도 재배방식 ‘비테 아드 알베렐로’ 등 한국과 이탈리아의 오랜 전통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 로마 한글학교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가 학생들에게 김장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탈리아에 피자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치가 있다”며 김치의 종류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에 사는 친구들이 김치와 피자의 매력을 모두 알고, 두 나라의 좋은 것들을 모두 누리며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수업을 함께 한 학생들에게 무명천을 누벼 만든 옷놀이 꾸러미를 색종이 보자기에 담아 선물했다.

김 여사는 수업이 끝난 뒤 “한국과 로마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며 안영신 로마 학교장을 비롯한 한글학교 교사들을 격려했다.

또 한글학교 교사들이 로마에 있는 동포, 한·이탈리아 다문화 가정 자녀 및 한국어를 배우는 이탈리아 학생 간 소통과 유대를 위해 노력하는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격려했다.

KBS 한민족체험수기 성인 부문 대상에 사할린 박영자씨

강제징용 가족사 담은 ‘3대에 걸친 어머니의 약속’ 출품

KBS라디오 한민족방송은 ‘제23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의 성인 부문 대상에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박영자씨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모전은 북방지역 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해온 것을 격려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중국·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등의 조선족·고려인·사할린 한인 등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6개 부문 2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소속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박 씨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이중 징용을 당한 가족사를 담은 ‘3대에 걸친 어머니의 약속’으로 상을 받았다.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 공모 한민족체험수기 대상을 차지한 사할린 박영자 씨

박 씨는 “가문의 영광이지만, 동시에 강제징용 역사를 지닌 사할린 한인을 위로하는 상”이라며 “이중징용으로 일본 탄광에 끌려갔다가 사할린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묻힌 외할아버지에게 이 상을 바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부문 대상은 중국 헤이룽장성 계동현 조선족중학교 3학년 이조영 학생의 ‘한국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차지했다.

고려인 특별상은 각각 ‘낯은 가요집’, ‘유랑 끝에 할머니 품에서 고향을 찾다’를 응모한 카자흐스탄의 남경자 씨와 전 예레나 씨가 받았다.

영상 부문 대상은 러시아 사할린 주 코스타 학생의 ‘우리 가족의 삶 이야기’가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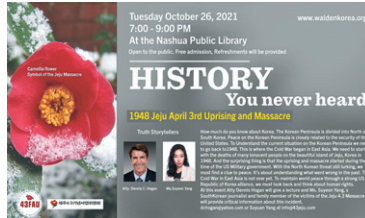
재미4·3기념사업·유족회, 역사 알리는 ‘진실 스토리텔러’ 양성

미국 주류사회에 공론화 모색, 평화 알리는 풀뿌리 시민운동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대표 양수연·이하 4·3사업회)는 미국 주류사회에 제주4·3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미국인을 상대로 ‘진실 스토리텔러’(Truth Storyteller) 양성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첫 번째 스토리텔러로는 공화당의 뉴햄프셔주 주지사 후보로도 나선 적이 있던 변호사 데니스 호간 씨다. 그는 뉴햄프셔주 내 슈아 시립도서관에서 4·3사업회가 월드 코리아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당신이 듣지 못했던 역사 이야기’ 강연 시리즈의 첫 연사로 나섰다.

그는 양수연 4·3사업회 대표가 지도하는 ‘제주4·3 스테디모임’에 참석해서 한국의 해방 전후사와 당시 제주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참상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해왔다.



재미4·3기념사업회·유족회는 최근 미국 주류사회에 제주4·3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진실 스토리텔러’를 양성해 강연에 나섰다.

양 대표는 “미국 대중이 제주4·3 사건의 배경과 항쟁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동시에 휴머니즘의 메시지도 담아서 강연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4·3사업회는 ‘진실 스토리텔러’가 왜 이 사건을 배워 주류사회에 이야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알리고, 제주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Czb4qcclcA8)에 공개했다.

양 대표는 보조 강의자로 나서서 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다. 또 그는 유족의 입장도 소개하고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에게 제주 향토 음식도 제공했다. 양 대표는 “이 강연 시리즈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돼 풀뿌리 4·3 시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고국과 동포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아프리카 ‘땅끝’ 남아공 케이프타운서 K-팝 경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행사... 생선 나눔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계적 휴양지인 케이프타운에서 K-팝 경연대회가 열렸다.

요즘 남아공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300명대로 줄었지만, 아직 감염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올해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열기만큼은 오프라인 행사 못지 않게 뜨거웠다고 평가를 받았다.

제2회 K-팝 경연대회는 11월1일~26일 케이프타운 거주 교민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케이프타운 한인회(회장 한호기)에 따르면, 경연에는 한인 7팀, 현지인 14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



케이프타운 한인회 주관 제2회 온라인 K-팝 경연대회 한인 참가자들의 경연 모습.

받는 상황에서도 좋은 기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즐거워했다.

현지인 참가자들은 왜 한국 노래를 좋아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K-팝에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구 음악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그래서 한국 문화 전반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또 조창원 전 케이프타운 한인회 회장은 행사를 하는 동안 갈치와 고등어 1.5t을 케이프타운 전 교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전하였다.

아울러 재외동포재단, 주남아공 한국 대사관,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및 개인사업가, 개인 등도 상품을 후원했다.



뉴욕 한복판서 한인축제 ‘코리안 페스티벌’ 개최

미국 뉴욕한인회 10월 24일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축제는 한인 2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 함양의 계기를 만들고, 미국 주류사회에는 한국을 알리고, 한인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 전시, 교육, 체험으로 나눠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최신속 명왕의 판소리를 비롯해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등도 무대에서 펼쳐진다. 김치 홍보 행사,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캠페인, 동해·독도 홍보 행사, 500인분 비빔밥 퍼포먼스, 궁중의상 체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게임 즐기 등이 진행됐다.



베를린서 독일 통일 31주년 한반도평화음악회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10월 1일 베를린 중심가의 평화 상징 빌헬름황제 추모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이승원 라이프치히대 음대 비올라 교수의 지휘하에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음악가 22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클래식 연주곡과 성악곡을 선보였다. 마지막 곡으로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불렀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민주평통 유럽·중동·아시아 지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독일 지역본부, 민화협 베를린지회, 한민족유럽연대, 코리아협회회 등의 후원으로 한독 문화예술교류협회가 주최했다. 음악회에서 모인 기부금은 북한보육원 어린이 돕기 등에 쓰인다.

주가봉한국대사관·한인회 코로나대응 의료진 위문행사

서아프리카 가봉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개천절 기념 국경일 행사를 코로나 대응 현지 의료진을 위해 개최했다. 10월 6일 가봉 최대 병원으로 코로나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해온 리브르빌 대학병원에서 음악회와 한식 행사를 열었다. 병원 콘서트에는 패트릭 기 오비앙 가봉 보건부 장관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실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인 성악가와 현지 바이올리니스트 등이 클래식 연주곡과 성악, 가곡 등을 불렀다.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재가봉한인회(회장 임웅빈)와 공동으로 한식 행사를 개최해 불고기, 잡채, 닭강정, 모듬전 등을 의료진들과 함께 나누었다.



월드옥타, 서울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10월 12~14일 서울 워커힌 호텔에서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일대일 수출상담회와 쇼케이스, 국내 구직 청년을 위한 해외 취업박람회와 취업 컨설팅이 열렸다. 서울시, 남양주시, 안도군 등의 경쟁력 있는 70여 개 중소기업이 30개국 130명의 한상(韓商)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48만달러(약 57억7천만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24명이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4개국 10개 회사와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진행했고, 총 50명의 구직자가 해외 취업 전문 컨설턴트와 대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했다.

강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온라인 연중행사로 개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강원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강원도는 10월 14일 원주시 오크밸리 골프빌리지에서 최문순 지사,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이사장, 원창욱 원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인 GTI 박람회는 가상 공간에 338개 중소기업의 1천59개 제품을 전시하고, 쇼핑물을 연동시켜 1년 내내 운영한다. 또 36개국 해외 바이어 300여 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도내 기업과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동북아시아 5개 지역 정부의 지사·성장 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재중한인회 한·중수교 30주년 추진위 구성... “내가 민간외교관”

재중국 한인들이 내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통해 양국 교류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중국 한국인회총연합회는 10월 22일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하정수 회장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앞으로 태권도 시범단 순회공연과 전국노래자랑 유치 등을 통해 교민들과 함께 수교 30주년을 축하하고 독립운동 사진전 및 시·회화 작가전 등을 열어 한·중간 역사·문화 교류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양국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한·중 문화산업 엑스포, 경제포럼, 온라인 교류전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한·브라질수교 62주년 기념식 상파울루서 열려... 우의 다져

코리아타운 활성화에도 의미... '브라질-한국 정원' 명명법안 통과

한·브라질수교 62주년을 기념하고 우의를 다지는 행사가 10월 27일 밤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시의회 측의 제의로 마련됐으며, 황인상 상파울루 총영사와 미우톤 레이치 상파울루 시의회 의장,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동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독도 아리랑' 음악을 배경으로 한인 이민사와 양국 간 외교·경제 관계 발전상, 한류 확산 상황 등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됐고, 전통무용과 어머니 합창단 공연이 이어지며 양국의 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지역의 코리아타운 활성화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최근 코리아타운의 상징물인 '우리(Uri)가 있는 곳을 '브라질-한국 정원'으로 명명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는 한류를 앞세워 상파울루 시내 봉헤치루 코리아타운을 품격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한인사회의 노력에 현지 언론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상파울루시는 2010년 1월 조례를 통해 봉헤치루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했으며, 2017년 4월에는 매년 8월 15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정했다.

이후 한인사회에서는 코리아타운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됐고, 최근 황인상 총영사가 부임하면서 실행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



상파울루 시의회에서 주브라질한국대사관 관계자와 상파울루 시 관계자, 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브라질수교 62주년 기념행사'.



상파울루 시의회는 최근 시내 코리아타운의 상징물 '우리'가 있는 곳을 '브라질-한국 정원'으로 명명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상파울루시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는 최대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인 동포들은 봉헤치루와 인근 브라스 지역에서 의류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의류업체는 약 3천 개를 헤아린다.

총영사관과 한인 단체들의 참여 속에 코리아타운 환경미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코리아타운 내의 건물 벽면과 도로 안내판에 한국의 이미지도 입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959년 10월 31일 브라질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세운 현지 공장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등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양국의 무역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50여 년 전 과거를 마주하다... 베를린서 파독간호사 사진전

공모 통해 60여점 전시... 실습 · 관광 · 생일파티 등 모습 담겨



베를린의 파독 간호사들(좌), 첫 베를린 시내 관광 나선 파독 간호사들.

“저 때는 정말 어렸는데... 밤마다 엄마 보고파서 눈물지었어요.”

정명열 재독한인간호협회 이사는 11월 8일 파독간호사로 베를린에 도착했던 1970년, 22살이었던 자신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베를린에 사는 1세대 한인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회복지단체 ‘해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베를린 중심가에서 ‘고국을 떠난 파독근로자 세대공감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지난 5~6월 사진공모전을 통해 파독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해로가 돌봐온 어르신들의 유품사진 중 선별됐다.

전시된 60~70점의 사진에는 파독 간호사들이 처음 숙소로 도착했을 당시 모습을 비롯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 독일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겼다.

간호사들이 들떠서 첫 베를린 시내 관광에 나선 모습, 어학원에 다니는 모습, 숙소에서 연 첫 생일파티에서 콜라로 건배하는 모습, 처음 독일을 방문한 어머니와 함께하는 모습 등도 볼 수 있다.

1966년부터 10년간 약 1만 명에 달하는 여성이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갔다. 독일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변경하면서 일부는 귀국했고, 일부는 제3국으로 옮겨갔다. 두 선택지를 거부하고 현지에 남은 여성 상당수는 독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저항하고 현지 여론과 연대해 삶을 지켜냈다.

봉지은 해로 대표는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노후를 보내던 파독 근로자들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면서 “사진을 찾으면서 이들은 그립고, 사랑했고, 후회했던 과거의 순간들과 마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에서 1963년부터 1977

년까지 1만8천여명의 간호사와 광부 등 근로자를 파견받았다. 이는 경제적 필요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었다고 해로 측은 설명했다.

파독근로자들 중 절반은 파견 기간이 끝난 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일에 남았고, 교회 공동체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독일에 사는 한국 출신 이민자는 5만명에 달한다.

봉 대표는 “세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을 공모했더니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면서 “과거와 마주하는 순간 등을 통해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의 ‘손님노동자’(Gastarbeiter)로 이주했던 한국 간호사들은 이제 독일 시민 사회의 일원이 됐다. 이들이 베를린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입양인 네트워크 한마당 ‘입양동포 모국방문’ 온·오프 개최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21 입양동포 모국방문’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해외 한인 입양인이 모국에서 네트워킹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4개국 390여 명의 입양동포와 자녀, 양부모 등 동반가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중 오프라인 참가자는 48명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재단은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입양동포와 모국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역·세대를 넘는 해외 입양동포 네트워크 연대 강화도 모색했다.

6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환영 영상이 해외입양동포들에게 전해졌다.

최종문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을 찾은 입양 동포들에게 “각자 생활하고 있는 국가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입양 동포들의 모국방문 행사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모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입양 동포들이 현지에서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에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모국방문 사업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입양 동포 여러분이 모국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입양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 입양동포 모국방문 행사에서는 토크 콘서트, 지역별·단체별 네트워킹 세션, 인포 세션, 입양 및 재외동포사회 현안 토론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에게 있어서 모국(한국) 방문의 의미’ ‘나와 나의 뿌리’ 등을 주제로 사연을 소개하는 토크 콘서트는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해외 입양인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참가자들이 함께 대화



재외동포재단은 11월 6~8일 14개국 390여 명의 해외 입양동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2021 입양동포 모국방문’ 행사를 열었다.

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장 포럼에서는 해외 입양동포 친족 찾기 프로그램 개선 방안, 한글학교-현지 입양동포 협력사례, 입양동포자조단체-한인단체 협력사례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네트워킹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딱지치기 등 우리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한국 문화·역사 관련 퀴즈를 풀었다.

인포세션에는 법무부 체류관리과, 법무부 국적과, 해외입양인 연대 관계자들이 나와 재외동포 비자(F4) 취득, 국적회복,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 사업 등 입양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 전통문화와 K-팝 체험을 하고, 입양인 권익 신장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재단은 2008년 이후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입양동포 정체성 강화 사업을 올해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8일 폐막식에서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동포는 형제자매, 가족을 의미한다. 지구촌 어디에 있든 우리는 동포이며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양동포가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갖도록 돕는 사업을 다시 하게 돼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하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입양동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한국이민사박물관, 이민 기록물 보존·활용 협약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한국이민사박물관 강당에서 재외동포재단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재외동포 자료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유동현)은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정보 및 자원의 공유와 연구를 위해 11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이영근 기획이사 및 이주연 홍보문화조사부장, 유동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및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 연구, 수집, 조사 등 공동노력, ▲재외동포 아카이브 추진 관련 자료 공유·연계,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수집 자료 가치평가 및 보존·전시 등 공동 협력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영근 기획이사는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재외동포 관련 기록물을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를 우리 국민께서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속으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민, 재외동포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다.

한인 이민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물 수집,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고려인 강제이주, 멕시코와 쿠바 한인 이주, 파독 광부·간호사, 사할린 한인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를 열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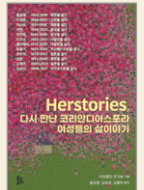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허스토리즈(Herstories), 다시 만난 코리아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 이야기

윤은정, 김숙임, 김현미 / 북코리아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온갖 고통과 소외를 견디며 살아온 여성들의 삶을 엮은 에세이가 출간되었다. 모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으며 살아온 이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읽어보자. 중국,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각기 살아온 국가도 다르고, 살아온 시기도 다르지만,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서사로서 우리에게 감명을 준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삶은 그 자체로 역사의 커다란 변화가 오롯이 새겨진 역사적 기록이며, 동시에 분단 극복과 평화 미래를 기획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녀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그것의 구체성이나 현장성의 차원에서 많이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녀들의 숨소리 하나, 머뭇거리는 한 순간조차도 모두 역사라는 인식이 충분히 머물지 못했고, 여전히 여자들의 삶이란 그저 ‘기구한 개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 정도로 폄하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단법인 조각보가 코리아디아스포라 여성 12명의 소중한 삶 이야기를 모아 낸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시무의 역사학자 강덕상 자이니치로서 일본의 식민지사를 생각한다

강덕상 기록 간행위원회 / 어문학사

재일 한인 역사를 위해 한 평생 살아왔던 재일 사학자 강덕상의 회고록이 발간되었다. 역사학자 강덕상의 삶은 재일조선인이 지나온 역사의 시대적 흐름과 같이 한다.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던 유년시절을 뒤로하고 비판적 역사 의식으로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했던 삶의 기록을 만나보자. 소년기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소년이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일조선인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풀어 나갔다. 재일조선인 연구자로서의 면모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의 개인적 고백을 살펴보자. 강덕상은 비판적인 역사 의식으로 일본의 조선사 연구, 특히 근대사 연구의 초석을 쌓았다. 강덕상의 연구는 ‘조선사는 일본의 왜곡을 바로잡는 거울이다’라는 말로 축약되며, ‘일본의 길모퉁이에는 반드시 조선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재일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강덕상이 말하는 ‘재일사학’의 본령은 ‘일본인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역사! 가만히 두고 언급하지 않으려 한 숨겨진 역사!’의 규명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 미래 모색한 '제4회 공공외교주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은 공공외교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제4회 공공외교주간' 행사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 동대문구 DDP에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4회 공공외교주간' 행사를 열었다.

'미래를 만드는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이 행사는 미국 USC공공외교센터와 주한대사관 46곳, 47개국 60개 기관 등이 협력해 80여 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9일 오전 개막식에서는 이근 이사장 개회사 후 전 유엔(UN) 사무총장인 반기문 글로벌녹색 성장기구(GGGI) 의장이 기조강연을 했다.

이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는 국내외 공공외교 관련 기관과 시민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공공외교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라며 "창립 30주년을 맞은 재단의 성과와 비전도 알리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제8회 한국국제교류재단상' 대상자로 선정된 나카오 히로시 일 교토예술대 객원교수에 대한 시상식과 특별 강연이 열렸다.

이날 KF 산하기관으로 신남방 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 강화를 위해 재단장한 아세안문화원 제2기 상설전시도 개막했다. 행사기간 공공외교 우수사례 소개와 지한파 외국 인사들의 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졌다.

우수 사례로는 미 평화봉사단원 다이앤 오델 씨의 1960년대 한국 봉사 경험담 소개,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판다를 활용한 중국의 동물 외교 사례 발표, USC공공외교센터의 니콜라스 컬 교수의 '평판 안보와 공공외교 역할' 등 주제 강연이 펼쳐졌다.

공공외교 토크 콘서트에서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경험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대표적 지한파로 TV 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마크 테토를 위시하여 살롯 홀릭 런던대 교수, 안나 예이츠 서울대 교수, 파이돈 프레스의 세계 100대 디자이너에 선정된 양태오 대표 등이 한자리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대담도 진행했다.

KF 창립 30주년을 축하공연도 열렸다. 저녁에 온라인 중계로 브라질, 멕시코,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자가 참여하는 '공공외교 랩소디' 무대가 소개됐다. 이밖에 미국 CBS 방송의 '더 월드 베스트' 경연에서 준우승한 국기원태권도시범단의 공연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됐다.


KOICA-세종학당재단, 봉사단원 대상 한국어 교원 연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세종학당재단과 협력해 한국어 교육 해외 봉사단원으로 활동 후 귀국한 이들에게 한국어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세종학당재단의 해외 파견 교원에 필요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단원들이 한국어 교원으로 경력을 이어가도록 돕자는 취지다. 15~19일까지 온라인 강의와 비대면 실습을 병행한 이번 연수에는 46명이 참가했다.

김지혜 서울과학기술대 어학교육원구원 한국어 전임교수의 특강 등 한국어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춰 해외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손혁상 KOICA 이사장은 "개발도상국 오지에서 펼친 한국어 전파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경력사다리' 역할을 하는 연수"라며 "해외 봉사활동으로 쌓은 경험과 활동 노하우를 발전시켜 개발 협력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KOICA는 이를 위해 귀국 단원 연수 외에도 개발 협력 취·창업을 돕는 '스텝 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1천458명을 교육했다. 



KOICA 소속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 후 귀국한 단원 46명은 세종학당재단의 한국어 교원 연수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한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10월 19일 세계한상대회 만찬 축사

세계 각국에서 오신 동포 경제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한상대회가 취소되어서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만나 뵙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제19차 세계한상대회'를 준비해주신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 오늘 만찬을 주최해주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주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내 기업인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 처음 시작한 이래로, 우리 한민족 동포 경제인들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서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우리 한민족 경제인 여러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경제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우리 현대사의 큰 성과를 일궈내는 과정에서, 늘 고국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상들이 현지 비즈니스 행사와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 고국의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사업과 나눔에도 힘써주고 계십니다.

조국과 동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10대 경제강국이 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출범해서 그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염원하시던 '재외동포청'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어디서든 여러분이 한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라는 OTT에서 출시한 '오징어게임'을 보셨지요?

넷플릭스 드라마 역사상 압도적인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BTS'와 '기생충'에 이어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에서 또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 경제인들께서는,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느라 힘드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추격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추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마침 이번 세계한상대회의 주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우리 국내 기업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친환경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다. 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무역 규제를 당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업 경영과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설득을 해 왔는데,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서 더 빨리 이 추세를 선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내 산업이, 국제적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상 기업인 여러분께서 많은 정보도 주시고 활발한 교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한상 여러분, 동포 경제인 여러분, 길고 긴 코로나19도 이제 서서히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백신 접종 참여율로, 조만간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일상 회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한상 여러분, 동포 경제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8일까지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을 받는다.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15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은 선거일 60일전까지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4. 3. 10.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2004. 3. 10. 이전 출생)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어 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신고·등록 신청 메뉴로 접속 후 주민등록 유무를 확인한다. 이어 전자우편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체크 후 검증 완료 후 신고서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 된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때는 유효한 여권번호와, 접수확인증 발송 및 안내를 위한 용도의 본인 명의 이메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는 거주지 재외 공관을 방문해서 직접 등록 신청도 할 수 있다. [창](#)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등록신청**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2020.02.16. ~ 2022.01.08.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1.10.10. ~ 2022.01.08.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02.23. ~ 2022.02.28.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바로가기](#)

-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10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10월 1일: 국정감사(기관보고)
- 10월 17일: YBLN 개회식 화상 참석
- 10월 5~7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주관,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참석
- 10월 20일: 재외동포재단-국기원 MOU 체결
- 10월 18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참석, YBLF 개회식 환영사
- 10월 28일: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방문
- 10월 19~21일: 세계한상대회 주관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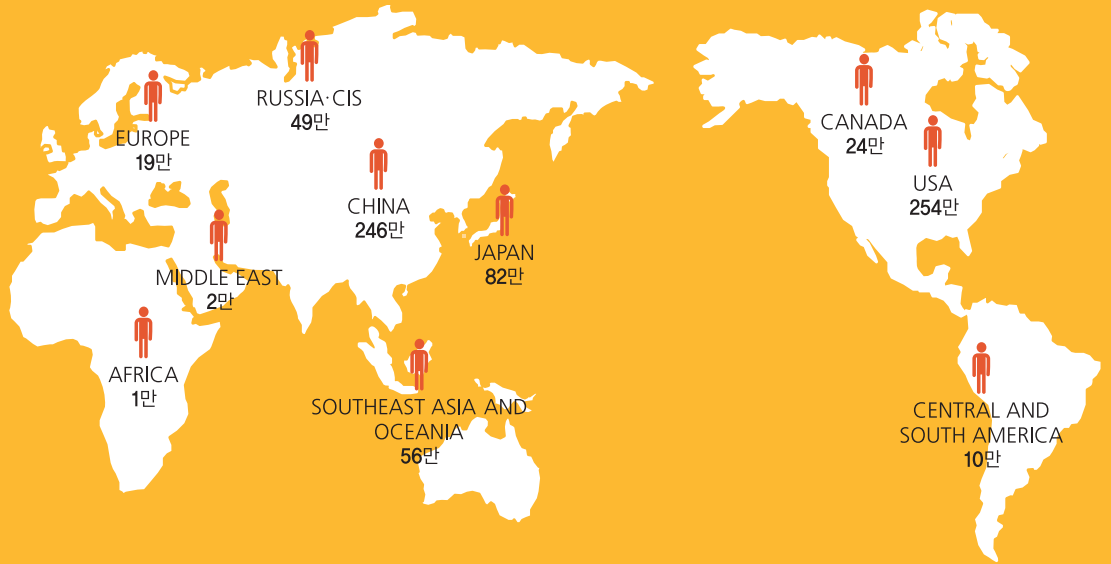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